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Elderly's leisure participation by the type of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onstraints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홍성희
여주전문대학 가정과
전임강사 김성희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Hong, S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Yeojoo Technical College
Lecturer : Kim, Sung Hee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 및
관련변수 |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s leisure participation and the type of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onstraint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485 elderly over 55 years old living in Seoul, Daejeon, Jeonju, and Daegu.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cross-tab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ypes of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onstraints of elderly was affected by the age,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status, region, total asset, income, pocket money, family relationship,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nd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status, region, family relationship,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had effects on leisure participation level of elderly.

These findings pointed that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family relation, self-

esteem, and type of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onstraints were the variables explaining leisure activities of elderly.

1. 문제의 제기

현대 산업사회의 현상인 도시화 및 핵가족화와 더불어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60년 2.9%에서 1995년에 5.8%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1996).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의 변화와 전문 교육기관의 출현으로 인해 과거 농경사회에서 생활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가족 내에서 지위를 부여받고 존경받았던 노인들은 노동과 사회활동의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또한 가정적 역할 면에서도 젊은 사람 위주의 핵가족화에 따라 가정 내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역할이 축소되어 가는 노년기에 처해있는 노인들에게는 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당면한 생활문제로 부각된다. 노인이 경험하는 생활문제란 일상생활 및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금전,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의해 발생하는 것(홍성희 등, 1997)으로서,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여가생활영역과 관련시켜 볼 때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과 정신적·신체적 에너지를 투입시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노인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개인의 욕구가 증대되어 오늘날의 노인은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생리적 욕구충족 외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인은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과거와는 달리 긴 노년기를 맞이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하며, 아울러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위

하여 여가나 취미활동을 중년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태현, 1994). 따라서 노인의 생활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년기의 여가생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주어진 많은 여가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종전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갖거나, 여가생활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도 실제로는 건강상태와 여가경험의 한계, 그리고 비용부담 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일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여가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의 여가에 대한 태도와 경험이 소극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특히 현재 노년기에 있는 노인들은 빈곤한 시대에 청장년기를 보낸 탓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도 노화현상과 만성적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며, 은퇴 이후 경제력의 약화로 여가비용 조달에도 제약을 느낀다. 따라서 노인들은 청장년층에 비해 여가태도 및 여가경험의 한계, 건강상태 및 여가비용의 제한 등으로 인해 더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며, 많은 여가제약을 인지하는데, 이는 적극적인 여가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개개인이 인지하는 여가태도와 여가제약의 수준이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는 현재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가생활에서의 문제점을 밝혀주며, 나아가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제약요인들을 밝혀줌으로써, 노인 개개인이 자신의 여가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합한 여가활동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

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노인 복지의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야 할 여가시설과 여가서비스의 양 및 질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 및 관련변수

1.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노인의 활동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이론적 개념들 중 여가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활동이론과 사회유리설을 들 수 있다.

활동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노화로 인하여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는 하나 심리적·사회적 욕구는 중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므로, 노인들은 여러가지 활동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오래 유지될 때 적응을 잘 한다고 본다. 즉, Neugarten(1968) 등에 의하면 개인의 특성은 노년기가 되어도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노년기에도 계속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Reichard 등(1962)은 노인이 사회적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가 유리되는가의 여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었던 사람은 노년기에도 그 특성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활동이론에서는 노년기에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활동적이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노인이 삶에 만족해하므로 노년기에도 계속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사회유리설에서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어떤 역할을 위임받기를 기대하나, 사회의 모든 연령층과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위축된다고 본다. Cumming 등(1961)에 의하면 노년기의 사회적 유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노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위안이나 휴식 등 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활동이론과 사회유리설은 각각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활동적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년기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상호작용의 범위가 노년기에 유지되기 어렵거나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종전의 역할과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는 여가활동에 의해 가능하다.

어떤 활동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즐거운 일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자기존중, 높은 자아개념, 자신감 등을 발전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가선택이 잠재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송정선, 1997)을 볼 때, 노인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활만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련변수의 고찰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개인적 변수를 비롯하여 경제적 상태와 관련된 가계관련변수, 여가에 대한 태도 및 여가계약정도로 구성된 여가관련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1) 성별

우리나라의 노인들 중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가족중심적 생활행태를 보이는 비율이 높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형식(1983), 임미숙(1985)의 연구에서는 여자노인이 손자녀돌보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성재(1986)의 노인 여가활동 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노인정·노인학교 참여, 화투 및 장기, 라디오 청취, 친척 및 친구 방문, 집보기의 순으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여자노인은 집보기, 집안일, 친구 및 친척 방문, 라디오 청취, 손자녀 돌보기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성별과 관련된 역할수행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가 노인의 여가활동에 제약이 되며, 따라서 여가활동참여도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 연령

연령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과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Gorden, 1976; Cutler, 1979) 및 노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의 여가활동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난 송정선(1997)의 결과를 고려할 때 연령이 여가계약 및 여가활동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육수준

Havighurst(1974)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창조적 활동, 체력관리, 클럽활동, 봉사활동, 독서 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수편을 취하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선미(1991)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수준은 여가경험 및 여가기회와 관련된 여가태도에 영향을 주며, 여가활동참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 취업상태

취업유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교육수준, 경제력과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취업유무는 개인의 여가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이선미(1991)의 연구에서는 노인들 중에서도 은퇴 이전의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업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부족을 든 바 있다. 따라서 취업상태는 개인의 여가시간을 결정하고, 여가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5) 건강상태

노인이 되면 신체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Parker(1976)는 건강상태가 노년기 여가활동을 폭넓게 유지시키고 여가참여빈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이현숙(1994), 신정화(1995)의 연구 결과 많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다. 또한 송정선(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

적 건강상태가 여가활동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거주지역

농촌거주노인과 도시거주노인의 여가활동실태를 비교한 김형식(1983), 오준제(1984), 최성재(1986)의 연구에 의하면, 거주지역에 따라 여가활동유형과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지역에 따른 여가경험과 여가기회의 제약 및 역할수행과 관련된 제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7) 월평균 총소득

소득은 노년기 여가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핵가족화와 자녀들의 부모부양의식 결여로 인해 노인단독세대가 늘고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박재간, 1984; 최성재, 1986; 이선미, 1991; 이현숙, 1984)에서 노인의 가장 큰 여가계약요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는 여가활동참여를 위해서는 교통비, 참가비, 준비비, 용돈 등 다양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여가참여를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8) 총자산

자산이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연구결과가 없으나, 자산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이나 안정적인 소득과 상호관련되어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Veblen(1967)은 여가의 향유가 개인의 사회계층을 나타내주는 상징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생활수준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장인협 등(1987)도 경제적 상황이 좋은 노인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9) 용돈

노인의 경우 용돈은 소득 및 생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김광득, 1990). 최은영(1981)도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계약요인이 여가의식이나 욕구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돈의 부족이라고 하였는데, 용돈이 정기적인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용돈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범위도 넓어지고 가정의 여가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 가족관계만족도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제한된 소득원과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가족과의 활동이 의미있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노인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 가족의 이해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재호, 1987; 신정화, 1995)를 고려할 때,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및 이를 통한 가족의 지원은 노인의 여가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11) 자아존중감

이미경(1986)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성취, 타인의 대우 등 모든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며, 자신에 대한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홍성희 등(199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여가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자기자신과 성취 정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노년기에 처해있는 노인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여가선호의 실현 정도 및 여가참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2) 내외통제성

내외통제성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결과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보상이 좌우된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 밖의 힘, 즉 운명이나 행운,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느낀다. 이때 전자는 내적 통제의 성향을 가졌다고 보며, 후자는 외적 통제의 성향을 가졌다고 본다(Rotter, 1966).

이러한 통제성향은 환경에 대한 인지 및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적 통제성이 강한 노인이 적응능력과 성취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나 기대수준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므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나 그에 따른 참여도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2) 여가관련변수

(1) 여가태도

일반적으로 태도는 과거에 학습한 경험의 산물로서,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학습된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Fishbein 등, 1975 를 이정우, 1997 에서 재인용).

여가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Ragheb(1982)는 여가태도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은 여가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지식과 신념,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 여가활동에 대한 현재 및 과거의 행동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각각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때 인지적 요소는 여가활동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말하며, 정서적 요소는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느낌과 선호 및 비선호의 정도를, 행동적 요소는 여가활동 및 여가경험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포함한다.

여가태도와 유형별 여가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정우 등(1997)의 연구에서는 소일활동을 제외한 가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사교·종교활동의 경우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가질수록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긍정적인 여가태도는 목적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여가활동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2) 여가계약요인

여계약요인은 사회심리적 의미에서 개인의 여가행동을 제한하는 힘으로 경험되는 내적인 심리 상태나 특성, 또는 성격과 외적인 환경을 의미하며(Lewin, 1951 을 김의숙, 1991에서 재인용), 계약요인은 여가선호 및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여가계약요인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한 Iso-Ahola 등(1985)은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능력이나 적성, 태도 및 동기의 부족을 지각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규범과 역할, 의무,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에서 장애를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급

전이나 시간, 시설, 기회의 부족과 같이 여가활동참여에 실제적인 장애를 주는 요소를 물리적 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화에 대해 Crawford 등(1987)은 이 모델이 개인 중심으로서, 제약요인이 개인을 넘어서 가족의 맥락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여가제약을 여가선호와 참여의 관계에서 세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즉, 여가제약에는 내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이 있는데, 내적 제약은 여가활동에 대한 적성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경험 등 여가활동에 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대인적 제약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부부나 가족의 공동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조적 제약은 가족생활주기, 시간, 비용, 기회 등 여가선호와 참여를 매개하는 요인이다.

한편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여가제약과 같은 개념으로서 여가활동의 저해요인, 여가장애요소, 여가불만족의 이유 등을 조사하였는데,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여가생활실태에 의하면 여가생활의 불만족 이유로 32%가 시간의 부족을, 26%가 돈의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이선미(1991)의 연구에서는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50대는 시간부족, 피로, 건강상태를, 60대의 경우 돈의 부족, 건강상태, 고령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즉, 노년기가 되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박재간, 1984; 최성재, 1986; Peterson, 1973)에서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경제력과 비용부담에 제약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노년기에 있는 노인들은 생활의 여유를 갖지 못했던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로 여

가활동을 즐겼던 경험과 여가활동 기술의 결여로 주어진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이희범, 1994). 한편,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건강상태로 인해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건강상태라고 한 이천희(198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여가비용, 건강상태, 여가경험 및 기술 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볼 때, 젊은층에 비해 더 많은 여가제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여가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가활동참여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의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개인적 변수 및 가계관련변수에 따라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의 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노인의 개인적 변수, 가계관련 변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이 여가활동 참여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심리적 성향 문항,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재정관련 문항, 여가활동 관련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문제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여가활동참여도(19)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휴식, 화투 및 장기, 친지들과의 대화, 가족대화, 친지집 방문, 운동, 관람, 여행, 노래 및 그림, 동창회 및 친목회,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가족동반 외식 및 외출, 정원 및 텃밭 가꾸기, 교양강좌, 독서, 신문잡지 보기 등에 대한 참여도 1=전혀 안한다 2=안하는 편이다 3=보통이다 4=자주 하는 편이다 5=거의 매일 한다
여가관련변수	
여가태도(6)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여가제약(10)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여가태도 및 제약유형	I=여가태도가 소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적음 II=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적음 III=여가태도가 소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많음 IV=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많음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조사대상자의 성별 1=남 0=여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교육년수(년)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1=매우 나쁘다 2=나쁜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취업상태	조사대상자의 취업상태 1=취업 0=비취업
거주지역	1=서울 0=기타(대전, 대구, 전주)
월평균총소득액	조사대상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액(원)
총자산액	조사대상가계의 총자산액(원)
용돈액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용돈액(원)
심리적 변수	
가족관계만족도(5)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인지도 1=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자아존중감(3)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 1=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4=높은 편이다 5=매우 높다
내외통제성(4)	조사대상자의 통제성향 1=내통제성 3=중간 5=외통제성

()은 문항수임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 대전, 전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5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연령,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표집이 이루어졌다. 조사는 1996년 12월 2일부터 1997년 1월 17일에 걸친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예비조사 후 여가태도, 여가계약, 가족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의 경우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여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서울의 360명, 대전, 전주 및 대구의 각각 120명 등 총 72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및 조사원이 개별면접이나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직접 면접하여 작성된 질문지 중 부실응답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485부였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rogram(Ver. 6.04)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성향, 여가관련변수 및 여가활동참여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여가관련변수인 여가태도와 여가계약의 상호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의 개인적 변수 및 가계관련변수에 따른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여가활동참여도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5 수준미만에서 유의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50.1%였으며, 평균 연령은 66.34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N=485)

범주형 변수	빈 도	백 분 율 (%)
성 별 남	244	50.1
여	241	49.9
취업상태 유	143	30.4
무	327	69.6
거주지역 서울	211	43.6
기타	274	56.4
연속형 변수	평 균	표 준 편 차
연령(세)	66.34	8.59
교육수준(년)	8.81	5.34
건강상태(1-5점)	2.89	0.93
총소득(원)	1578364	1529490
총자산(원)	2.4469E8	4.4915E8
용돈(원)	261910	31517
가족관계만족도(1-5점)	3.57	0.63
자아존중감(1-5점)	3.20	0.78
내외통제성(1-5점)	3.04	0.64
여가태도(1-5점)	3.83	0.91
여가계약(1-5점)	2.55	0.57
여가활동참여도(1-5점)	2.59	0.45

세, 교육년수는 8.81년이었다. 또한 취업한 경우는 30.4%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약간 나쁜 것으로 인지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월평균 총소득과 용돈은 각각 약 158만원과 26만원이었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고, 내외통제성의 수준은 중간 정도였다.

한편 조사대상 노인의 여가실태를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노인의 여가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인지하는 여가제약의 수준은 중간보다 낮았으며, 여가활동참여도 또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

선행연구에서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은 각각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진 바 있다. 이때 여가태도는 보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비해 여가제약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장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요인이 표현되는 단계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상호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을 평균값에 따라 각각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가지 유형이 형성되었는데(〈표 3〉 참조), 첫째, 여가태도

가 소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적은 집단(유형 I), 둘째, 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적은 집단(유형 II), 셋째, 여가태도가 소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많은 집단(유형 III), 넷째, 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많은 집단(유형 IV)이다.

3. 노인의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에 따른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이 개인적 변수 및 가계관련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연령에 따라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집단의 경우 여가태도가 소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을 적게 인지하거나, 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적은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7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는 유형 III 및 유형 IV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여가태도와 관계없이 여가제약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중졸이하로 낮은 집단에서는 유형 I 을 비롯하여 유형 III, 유형 IV에 속한 노인들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여가제약을 높이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졸 이상의 노인들은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보이면서 여가제약도 적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교육수준은 여가경험과 여가기회를 확대시켜줌으로써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형성시키

〈표 3〉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의 유형

		N(%)		
여가제약	여가태도	소극적	적극적	전체
	적음		106(63.10)	260(81.00)
많음		62(36.90)	61(19.00)	123(25.15)
계		168(34.36)	321(65.64)	489(100.00)

$$\chi^2 = 18.773^{***} \text{ DF}=1$$

*** p < .001

〈표 4〉 노인의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에 따른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

변수	여가태도 및 여가 제약유형	N(%)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전체
연령	55~64세	47(20.00)	142(60.43)	21(8.94)	25(10.64)	235(48.45)
	65~74세	37(24.67)	78(52.00)	18(12.00)	17(11.33)	150(30.93)
	75세 이상	21(21.00)	39(39.00)	21(21.00)	19(19.00)	100(20.62)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19.499^{**}$ DF = 6						
성별	남	54(22.13)	129(52.87)	29(11.89)	32(13.11)	244(50.31)
	여	51(21.16)	130(53.94)	31(12.86)	29(12.03)	241(49.69)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0.285$ DF = 3						
교육수준	중졸이하	71(26.89)	109(41.29)	49(18.56)	35(13.26)	264(54.43)
	고졸이상	34(15.38)	150(67.87)	11(4.98)	26(11.76)	221(45.57)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41.436^{***}$ DF = 3						
취업상태	취업	29(20.28)	78(54.55)	15(10.49)	21(14.69)	143(30.43)
	비취업	72(22.02)	173(52.91)	43(13.15)	39(11.93)	327(69.57)
	계	101(21.49)	251(53.40)	58(12.34)	60(12.77)	470(100.00)
$\chi^2 = 1.354$ DF = 3						
건강상태	나쁨	28(23.14)	48(39.67)	25(20.66)	20(16.53)	121(24.95)
	보통	38(21.47)	94(53.11)	24(13.56)	21(11.86)	177(36.49)
	좋음	39(20.86)	117(62.57)	11(5.88)	20(10.70)	187(38.56)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22.787^{**}$ DF = 6						
거주지역	기타도시	77(28.10)	134(48.91)	33(12.04)	30(10.95)	274(56.49)
	서울	28(13.27)	125(59.24)	27(12.80)	31(14.69)	211(43.51)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15.880^{**}$ DF = 3						
총자산	3천만원 이하	42(28.00)	59(39.33)	27(18.00)	22(14.67)	150(30.93)
	3001만~15000만원	36(23.38)	71(46.10)	21(13.64)	26(16.88)	154(31.75)
	15001만원 이상	27(14.92)	129(71.27)	12(6.63)	13(7.18)	181(37.32)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40.556^{***}$ DF = 6						
월평균소득	60만원이하	47(28.48)	65(39.39)	28(16.97)	25(15.15)	165(34.02)
	61만~200만원	46(23.35)	101(51.27)	23(11.68)	27(13.71)	197(40.62)
	201만원이상	12(9.76)	93(75.61)	9(7.32)	9(7.32)	123(25.36)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38.663^{***}$ DF = 6						

〈표 4〉 계속

변수		여가태도 및 여가 제약유형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전체
		용돈	10만원 이하		54(27.41)	74(37.56)	30(15.23)
11 - 30만원			30(23.81)	62(49.21)	21(16.67)	13(10.32)	126(25.98)
31만원 이상			21(12.96)	123(75.93)	9(5.56)	9(5.56)	162(33.40)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58.287^{***}$ DF = 6							
가족관계만족도	불만족		33(23.40)	44(31.21)	34(24.11)	30(21.28)	141(29.07)
	보통		51(26.42)	104(53.89)	19(9.84)	19(9.84)	193(39.79)
	만족		21(13.91)	111(73.51)	7(4.64)	12(7.95)	151(31.13)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67.082^{***}$ DF = 6						
내외통제성	내적통제		41(28.47)	61(42.36)	23(15.97)	19(13.19)	144(29.69)
	중간		42(21.11)	102(51.26)	27(13.57)	28(14.07)	199(41.03)
	외적통제		22(15.49)	96(67.61)	10(7.04)	14(9.86)	142(29.28)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20.662^{**}$ DF = 6						
자아존중감	낮음		43(28.29)	55(36.18)	30(19.74)	24(15.79)	152(31.34)
	보통		32(22.70)	68(48.23)	23(16.31)	18(12.77)	141(29.07)
	높음		30(15.63)	136(70.83)	7(3.65)	19(9.90)	192(39.59)
	계		105(21.65)	259(53.40)	60(12.37)	61(12.58)	485(100.00)
	$\chi^2 = 49.055^{***}$ DF = 6						

* P < .05 ** P < .01 *** P < .001

며,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여가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의 경우 여가제약을 적게 인지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는 유형 III에 속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반면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들 중에서는 유형 I, III 및 IV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선행연구(이현숙, 1994; 신정화, 1995)의 결과 많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쁜 건강상태는 여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제약을 형성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거주지역 중 서울이 아닌 기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여가제약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울에 거주

하는 노인들의 경우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여가경험이나 여가기회와 관련하여 여가태도가 형성되는데 차이가 있으며, 여가제약을 인지하는 상황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산이 적은 집단에서는 유형 I 과 유형 III에 속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 여가제약과 관계없이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산이 가장 많은 집단에서는 유형 II에 속하는 경우 즉, 여가제약을 적게 인지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월평균소득이 60만원 이하로 가장 적은 집단에서는 유형 I 과 유형 III, IV 등 다양한 유형에 분포된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201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면서 여가제약은 적게 인

지하는 유형 II에 속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용돈이 많은 노인들 중에서는 유형 II에 속하는 노인들이 75.93% 로서 여가제약을 적게 인지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용돈이 가장 적은 집단에서는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갖거나 여가제약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자산, 월평균소득, 용돈 등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의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경제적 상태는 여가태도를 형성시키고 여가제약을 인지하는데 자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용돈과 자산이 적을수록 여가 생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던 홍성희 등(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유형 I 과 유형 III, IV에 속하는 노인들이 많아 여가태도

가 소극적이거나 여가제약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유형 II에 속하는 노인들이 73.5%로 대체로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갖으면서 여가제약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내외통제성에 따라서는 외적 통제의 성향을 가진 노인들 중에서는 유형 I이나 유형 III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갖거나 여가제약을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였고, 내적통제의 성향을 가진 노인들 중에서는 유형 II에 속하는 경향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서는 낮은 집단에서 유형 I, 유형 III, 유형 IV에 속하는 노인들이 많아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갖거나, 여가태도와 여가제약을 모두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4.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여가태도

<표 5>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485)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가활동참여도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연령		0.017	0.048
성별(남)		0.004	0.748
교육수준		0.892	0.259***
취업상태(취업)		1.696	0.881
건강상태		1.047	0.375**
거주지역(서울)		1.986	0.689**
월평균소득		2.755E-8	0.000
총자산		3.863E-10	0.000
용돈		-0.000	0.000
가족관계만족도		2.433	0.587***
자아존중감		1.730	0.491***
내외통제성		1.161	0.537*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 I #		0.841	1.146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 II #		3.682	1.063***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 III #		0.286	2.272
INTERCEPT		20.021	5.003
F값		16.542***	
R-square		0.355	
Adj R-square		0.334	

기준집단 : 여가태도 및 여가제약유형 IV

* P< .05 ** P< .01 *** P< .001

및 여가계약유형이 여가활동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송정선(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할수록 여가활동 참여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태도 및 계약유형에 따라서는 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계약이 적은 집단이 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계약이 많은 집단에 비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다.

위의 결과에서 볼 때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여가활동 연구에서 소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던 것과 달리 소득이나 용돈 등 개인의 경제력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등 심리적인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여건과 관련된 요인 이외에 여가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여가태도와 여가계약의 상태가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여가참여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생활 상의 문제 중 역할 상실 및 활동 감소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이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금전,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가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과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투입시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에 접근하는데, 노인들의 여가활동참여의 과정에는 노인 개인의 개인적 특성과 가계특성 이외에 여가태도와 여가계약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노인

이 인지하는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의 유형과 여가활동 참여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첫째,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의 상호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의 수준에 따라 네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유형은 노인의 성별과 취업상태를 제외한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거주지역, 자산, 월평균소득, 용돈, 가족관계만족도,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연령이 적은 노인,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인 노인,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 자산과 월평균소득·용돈이 많은 노인, 그리고 가족관계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적극적인 여가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가계약을 적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노인 개개인의 특성 및 경제적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상황은 곧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여가태도와 여가계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여가계약의 상황을 노인 스스로 개선하는데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고령으로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갖고 있거나 나쁜 건강상태 또는 용돈의 부족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해도 계약을 많이 받는 노인들을 위해 이러한 제약 내에서 노인 개개인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및 공간을 지원해주는 노인복지정책 및 기관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서울에 거주할 때, 가족관계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계약이 적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소득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이나 여가비용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여가계약요인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노인의 경제상태를 나타내주는 자산,

소득, 용돈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가족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등 심리적인 변수들이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신감,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고취시키는 일이 병행되어야 하며, 노인들의 여가참여를 유도하고 노인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시설 및 단체에서는 일반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는 달리 대상 노인의 교육수준의 차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거나 건강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여가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는데, 첫째, 노년기가 시작되는 연령에 대한 견해는 노인의 개념규정에 따라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취업상태, 경제력, 심리적 요인등의 다양성을 위해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노인의 여가활동참여도를 조사하기 위한 여가활동으로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었으나, 이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즉, 노인들의 경우 일반 성인들과 달리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에 적게 참여하므로 모든 종류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한편 여가활동의 종류보다는 참여수준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유형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형화하는 분석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가태도나 여가계약요인은 여가활동참여도 결정을 매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들을 매개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이 여가활동참여도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적 측면에서 노년기에 있거나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태도를 고취시켜 다양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노년기의 여가생활을 계획하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축이 되어야 하는 정부나 노인복지시설, 노인대학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노인의 여가활동의 특성에 대한 자료가 됨으로써,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노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새로운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지금까지 은퇴후 경제적 준비 및 신체적 부양에 집중되었던 연구경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광득(1990). 현대여가론. 서울:백산출판사.
- 2) 김재호(1987).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4)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교문사.
- 5) 김형식(1983).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박재간 등 (1984).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7) 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신정화(1995). 노인층의 여가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광레저연구 제7권.
- 9)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정우 등(1997). 중·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활동 참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 11) 이천희(1982). 도시 고령자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권.
- 12) 이현숙(1994). 노인의 여가활동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3) 이희범(1994). 노인의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고찰. *홍익대 홍익논총* 제26집.
- 14) 장인협 등(1987). 노인복지학.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15)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9권.
- 16) 최은영(1981). 노년기 생활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18) 홍성희 등(1997).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3호.
- 19) Crawford, D.W., G. Godbey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Sciences* 9: 119-127.
- 20) Cumming E. and Henry W.E.(1979). *Growing Old*, New York:Basic Books Publishing Co., Inc.
- 21) Gorden. C., Gaitz. C.M. and Scott, J.(1976). "Leisure and Lives: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ited by R.H.B in stock and E. Shanas(New York:D. Ban Nostrand), p.314.
- 22) Havighurst, R.G.(1974). "Aging in America: Implication for Education", Washington,D.C.,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Inc.
- 23) Iso-Ahola, S. and R. Mannell(1985).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leisure." in Wade, M. G.(1985). *Constraints on leisure*. Springfield: Charles C. Thoms.
- 24) Neugarten B.L., Havighurst R.J. and Tobin S.S. (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Middle Age and Aging :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Ed.) Neutrogen B.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5) Parker(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Geory Allen and Unwin Russel, A. Ward and Susan, R. Serman(1984), "Subjective Network Assess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 of G.*, Vol. 39, No.1. pp.83-101.
- 26) Ragheb, M.g. and J.G. Beard(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Second Quarter.